

# 직관적 체험내용으로 비추어 본 생활공간의 역동성

## Dynamism of Lived Space in the Light of Intuitive Experiential Contents

김영철\*  
Kim, Young Chu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field dynamics of 'lived space' in the light of our intuitive experiential contents by way of investigating three properties of space. While finding inspirations in the field theory of modern physics, investigation of our intuitive responses to the physical and spatial environment leads us to a coherent view of matter and space. We find then that our lived world is more than a system of inert matter; it is a dynamic environment of life in which feeling and mood, spiritual meaning and value, are perpetually infused with matter. Any concept of space, if it is to be meaningful to life has to somehow acknowledge this fact. Empty space and matter cannot be conceived as mutually exclusive and independent as in classical physics. Rather they should be seen as two different manifestations of an underlying dynamism which permeates the world. The 'properties' of space can only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impact' of material presence. The object cannot be seen as an isolated entity, but the 'conditioning' of its surrounding space has to be understood as an integral part of its being. Lived space can thus be viewed as an emotionally charged field, or a field of emotional energy, whose properties may be described in terms of concentration, mobility and resonance.

Keywords : lived space, field dynamics of space, emotional energy, concentration, mobility, resonance

주요어 : 생활공간, 공간의 장역학, 정서적 에너지, 농도, 운동성, 공명

### 1. 서론

그리스의 원자론과 유클리드 기하학의 전통을 따른 고전물리학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공간은 물체의 존재 및 역학(力學)과 무관한 무미건조하고 균일한 연장(延長)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실제로 물질(物質)<sup>1)</sup>은 절대로 생동하지 않으며 생명이나 마음과도 전혀 공통점이 없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물체의 존재는 공간 속에서 그 물체가 얼마만큼의 길이나 면적 혹은 용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없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에서는 전하(電荷)나 자성(磁性)을 지닌 물체가 주위에 전자장(電磁場)을 형성하여 그 장 속으로 들어오는 다른 물체에게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특히  $E=mc^2$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로 요약되는 질량-에너지 등가성(等價性) 원리에 따르면 에너지와 물질의 차이는 밀도의 차이로 환원된다. 거듭하여 더 작은 입자를 연구한 결과 물질을 아주 작은 당구공처럼 덩어리와 형태를 지닌 부술 수 없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입자들은 오히려

국소적으로 농축된 에너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빈 공간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장이며 물질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장이라는 것이다. 공간은 물질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에너지의 장이 되며 그 밀도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다루는 공간은 인간의 체험과 무관한, 다시 말해서 선험적(先驗的)인 것으로서 물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한다. 한편 생활공간(영어: lived space, 독일어: der gelebte Raum)<sup>2)</sup>은 인간의 삶을 수용하는 공간으로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의 존재와 그렇게 형성된 환경을 체험하는 인간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

자연공간, 즉 자연이 제공해주는 생활공간에서는 한없이 펼쳐지는 하늘 아래 들, 숲, 산, 계곡, 강, 호수, 바다 등으로, 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활공간인 건축공간에서는 바닥, 벽, 기둥, 지붕과 같은 물체들로 인해 어떤

1) 물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질량(質量)을 가지며 공간의 일부를 차지한다.

2) 생활공간을 굳이 자동사 live(영어)와 leben(독어)의 수동태를 사용하여 각각 'lived space'와 'der gelebte Raum'으로 표시하는 것은 사람의 삶이 전개되고 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김영철(2000), "생활 공간의 정서적 장역학", 한국주거학회지, 제11권 제2호, pp. 13-23의 주 1 참조.

\*정회원, 계명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학박사

질서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동하며 작업하며 생각하며 느끼면서 삶을 영위한다. 따라서 삶은 신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 정서적, 영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한다.

본 연구자는 사람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생활공간이 ‘힘의 장(field of forces)’을 형성하고 있음을 다양한 상황을 통해 논고한 바 있다<sup>3)</sup>. 즉, 우리의 체험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생활공간은 정서적 에너지로 충전된 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에너지의 질이나 분포상태에 따라 어떤 곳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행사하고 어떤 곳은 사람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생활공간을 정서적 에너지로 충전된 장으로 간주하되 가시적인 행동을 일으키기 전단계의 느낌이나 기분, 혹은 정서를 포함한 직관적인 체험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에 대한 직관적인 체험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공간이 물체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농도, 운동성, 공명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게 됨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우리 생활공간은 균일하고 단조로운 연장이 아니라 물체의 존재와 질서 등에 따라 속성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체험의 장이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여기서 공간의 농도 및 운동성이라 함은 공간 자체가 마치 어떤 기체와 같은 물질인양 위치와 기타 상황에 따라 응집, 희박화, 압축, 확산, 전진, 정지, 상승, 하강 등 농도와 운동성의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속성인 공명은 정서적 에너지로 충전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암시되어 있는바 공간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감응을 말한다. 공간이 사람에게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 혹은 감동을 준다는 것은 공간이 어떤 정서적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으며 그 진동이 사람과 어떤 공명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환기하건데 여기서 말하는 공간의 속성에는 물리적 실체는 없다. 그러나 우리 체험내용을 묘사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적절한 도구가 된다.

## II. 직관적인 공간체험

### 1. 비합리적인 것의 중요성

플라톤 이래 정통 서양철학에서 이성(理性)은 인간이 지니는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추구되어 왔다. 이 합리주의적인 전통은 데카르트에서, 특히 “내가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의 유명한 격언에서 정점에 이른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기하학이나 수학만큼 확실한 철학을 추구하였다. 그 후 이러한 수학적 논리는 주어진 것으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추출해내는 과학의 발달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체험에 관심을 돌리게 되면 분

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회피되는 비합리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보다 더 많고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세상의 현상들이 포함하고 있는 풍요로움과 즉시성은 그러한 연구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물건, 장소, 사람 등의 본질 혹은 질적인 전체성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조우 그리고 저절로 일어나는 느낌과 직관을 통해서 밝혀진다.

바로 이런 인식 아래 실존주의철학자들은 철학계에서 합리주의적인 전통에 의심을 품게 되었으며 비합리적인 것을 회복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sup>4)</sup>.

### 2. 공간체험의 경우

공간에 대한 우리의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체험내용을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역시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의 공간체험은 많은 부분이 직관적으로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은.....잠재의식적인 공간감각을 지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놀랄만한 사실은 공간이 이 감각을 위해 둘러싸일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라고 어노 골드핑거는 1941년 저술하면서 평상시 표면의식에까지 떠오르지 않는 공간체험 내용에 주목하였다.

공간감각을 받는 사람은 (그 감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흔히들 다른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잠재의식에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작업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다할지라도 그는 항상 공간적 관계와 에워싸임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곧 이어 골드핑거는 흥미롭게도 공간과 음악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직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공간체험이 어떤 정서적 공명이나 감응을 수반함을 말한다.

이는 어쩌면 음악이 들리는 영역 안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려고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듯이 공간적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으려고 공간적 관계를 의식적으로 꼼꼼히 조사할 필요도 없다. 건축을 바라봄으로써 관찰자는 미적 기쁨(혹은 혐오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건물의 회화적 혹은 조소적인 효과를 관찰하는 가운데 관찰자는 어떤 공간질서 속에 있으면서 어떤 공간적인 감동을 받는다<sup>5)</sup>.

## III. 공간의 농도

### 1. 정서적으로 충전된 공간

우리의 정서적 반응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물리적인

4) Martin Heidegger (1962), *Being and Time*, SCM Press Ltd., pp. 175-177 참조.

5) Erno Goldfinger (1941), “The Sensation of Space”, *The Architectural Review*, Vol. XC, No. 539, pp. 129-131.

3) 김영철(2000), pp. 13-23.

세계에서 체험하는 공간은 무미건조하고 균일한 연장이 아니다. 방구석의 아늑함,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작은 구석이나 틈새, 깊은 처마가 주는 은신처와 같은 안정감, 천개(天蓋)로 덮혀진 옥좌의 위엄, 심지어는 모자를 쓰고 싶어 하는 충동도 많은 부분이 같은 데서, 즉 물체의 존재와 질서에 의해 초래되는 공간의 국소적인 변화를 우리가 인식한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물체들과의 관계에서 그 부근, 아래, 사이 혹은 그 가운데 위치한 공간들은 어떤 정서적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공간들은 특정한 분위기와 의미와 가치로 채워져 있으며 인간의 정신(psyche)과 어떤 공명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공간은 위치에 따라 농도와 진동이 변화하는 정서적 에너지의 불균일한 장(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체험내용을 통해 본다면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물체들은 자연적인 것이든 인공적인 것이건 간에 인간의 정신에 작용하기에 모두 물리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서적인 존재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물체들은 정서적 에너지로 채워져 있으며 감정과 의미와 가치를 집중, 농축시킨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라는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나 상황, 경향이냐 가능성, 혹은 힘이나 운동을 인식케 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체의 존재는 그 물리적 경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어떤 분위기를 풍기며 주위 공간의 성격을 좌우한다. 물체는 그 정서적 힘이 미치는 주위에 어떤 장소 내지 영향권을 만들어낸다. 정서적으로 충전된 이 공간은 물체가 존재함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사람의 존재가 공간의 분위기와 밀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처럼 탁자이든 조각이든 기둥이건 간에 물체의 존재도 방의 성격을 바꾼다. 이용자가 그 방을 여기저기 거닐때 그 물체를 비켜서 가야한다는 사실 외에 그 물리적 덩어리와 함께 어떤 분위기와 새로운 공간 분포를 초래하게 된다.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체를 공간 속에 집어넣는 일은 연못에 돌을 던지거나 섯가루 속에 자석을 던지는 것과 같다. 물체는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간의 기존 성격과 분포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 2. 물체의 영향권

막대자석은 형태, 재료, 질량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주위에 자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체험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물체가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그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확장한다. 즉 물체는 어떤 에너지로 충전 농축된 영향권을 자기 주위에 형성한다. 이 시각에서 본다면 공간적 연장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그 주위에 형성하는 영향권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이는 물질의 성질이 단순히 연장으로만 환원되며 물체의 “존재는 공간 자체의 기존 상황에 아무것도 더하는 것이 없다<sup>6)</sup>”고

하는 데카르트적인 개념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또한 광대한 연장의 불확실성과 대치해서 “육중한 이집트 기둥이나 피라미드나 스톤헨지의 삼석구조물에서 혹은 플로렌스 궁전들의 거칠게 다듬어진 징두리들에서”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거대한 것의 보호적인 존재”에 주목한다. 또한 허전함이 두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익숙한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면 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골동품으로 자기 방을 채우고 정원을 관목과 나무로 거둬 채우려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주택에서 벽의 빈 표면을 장식으로 채우고자” 한다<sup>7)</sup>. 이러한 물건들의 집중은 관찰자에게 마치 어떤 기체나 에테르 같은 것이 농축되어 공간밀도를 높이는 것처럼 인식되거나 아니면 물체 주위에서 풍겨지는 어떤 느낌의 강도로서 구현되어 있는 강한 에너지의 장으로서 인식될지도 모른다. 흥미롭게도 에테르적이기도 하고 에너지적이기도 하는 이 양면성은 현대물리학에서 빛을 관찰할 때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입자로서 인식될 수도 있고 파동으로서 인식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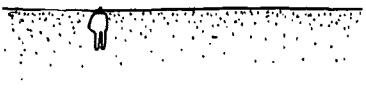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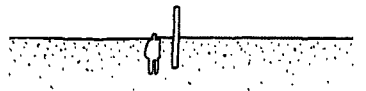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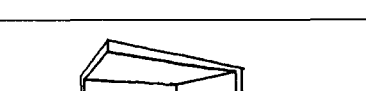
에테르적인 측면은 “이 방에는 외로운 공기가 감돌다.”라든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한 가정”이라는 표현에 예시되는 것처럼 ‘공기’나 ‘분위기’와 같은 말에 의해 충분히 시사되어 있다. ‘분위기(雰圍氣)’란 말은 ‘안개같이 둘러싸는 공기’ 내지 ‘기(氣)’를 가리킨다. 영어로 분위기를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atmosphere’는 사람이나 물건을 둘러싸는 정서적 공기의 확장성과 함께 그 확장 형태까지도 암시한다. 왜냐하면 atmosphere는 atmo-와 -sphere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자 그대로 ‘증기의 공(sphere of vapor)’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Atmos처럼 그리스어로 ‘숨’ 혹은 ‘김’을 뜻하는 ‘aura’ 역시 에테르적인 측면을 시사하는 말이다. 성화에 나오는 그리스도나 성인의 머리를 둘러싸는 후광처럼 오라(aura)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장소를 에워싼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이 물체가 들어섬으로써 주위공간에 인력장(引力場)과 같은 것이 형성되어 그 농도를 인상(上昇)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현상을 에너지의 강도(세기)로도 묘사할 수 있다. 이 공간의 에너지장(場)적인 측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거대한 물체나 건물 근처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느낄 때에 빌어서 두드러진다. 그것은 화로나 종(鐘)이나 등(燈)이 열에너지, 소리에너지 혹은 빛에너지로 주위공간을 채워 에너지 강도가 높은 장을 형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전기와 가스를 이용한 시설과 장비들이 현대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기 전에 서양에서는 벽난로가 집의 중심점 역할을 하였다. 불꽃이 깜빡이고 나무가 타는 가운데 난로는 주위에 열을 방사하였고 거기에 가족들이 항상 모

6) René Guénon (1972), *The Reign of Quantity and Signs of the Time*, Penguin Books Inc., pp. 25와 43.

7) Cornelis van de Ven (1980), *Space in Architecture*, Van Gorcum, pp. 97-98.

표 1. 공간유형에 따른 공간의 농도, 운동성, 공명 비교 (여기서 공간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유형 A: 수평 땅바닥; 유형 B: 수평 땅바닥+기둥 1개; 유형 C: 수평 땅바닥+벽 1개; 유형 D: 수평 땅바닥+구석을 이루는 벽 2개; 유형 E: 수평 땅바닥+구석을 이루는 벽 2개+지붕)

| 공간유형(투시도)   | 농도  | 운동성                                  | 공명                                  |
|---|---|--------------------------------------|-------------------------------------|
| A    |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수록 농도가 높아지나 수평방향에서는 어느 지점이나 동일함 | 모든 수평방향으로 동등한 세기의 자유로운 운동성           | 자유로운 반면에 단조롭고 어느 한곳 기댈 데가 없어 허전함    |
| B    | 기둥 주위에서 높음                                  | 기둥이 박힌 지점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운동성             | 수평면의 단조로움이 깨진 가운데 기둥에 기댈 수 있어 덜 허전함 |
| C    | 벽 측면에서 높아지며 B의 기둥 주위보다 높음                   | 벽과 평행한 방향으로 강한 흐름이 암시됨               | B에 비해 더 넓은 영역에서 아늑한 분위기를 확보함        |
| D    | 구석에서 가장 높으며 C의 벽 측면보다 높음                    | 구석에 정적인 공간이 형성됨                      | 은신처로서의 성격이 C보다 강함                   |
| E  | 지붕으로 덮어진 구석에서 높으며 D의 구석보다 높음                | 상향운동까지 제한 받아 구석의 정적인 성격이 D에서보다 더 강화됨 | 은신처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함                    |

여들어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였다. 주택의 중앙난방과 방마다 설치된 TV와 컴퓨터는 난로의 역할을 오직 장식요소로 대폭 축소시키고 말았다. 현대적인 대형 사무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산광(散光)조명 역시 모든 곳에 골고루 빛을 제공함으로써 균일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3. 공간의 농도와 주거

주거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를 응집하고 정착시키는 장소이다<sup>8)</sup>. 인간은 거주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거처에 자기 존재를 거두어들이고 정착시키며 자기 존재를 세상 속에서 확립시키게 된다. “집이 흩어져 있는 것을 거두어주기에 인간은 자신을 거둘 수 있게 된다.”<sup>9)</sup> 물리적으로 완성된 주거는 물론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 즉 바닥, 기둥, 벽, 지붕 등도 각각 그 위, 부근, 주위 혹은 아래에 공간이 농축된 영역을 만들며 거기에 우리 존재를 거두어들이고 정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표 1>.

8) 김영철(1995),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정착과 집중”,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9호, pp. 3-14.  
 9) Otto F. Bollnow (1963), Mensch und Raum, W. Kohlhammer, p. 132.

IV. 공간의 운동성

1. 공간과 물질의 상호작용

사방이 확 트인 들이 주는 개방감은 시가지 도로 혹은 터널이나 실내공간이 주는 기분과 확연히 다르다. 열린 들의 자유로이 움직이는 팽창성과 비교하면 높은 건물들 사이에 낀 도로 공간은 도로축에 따른 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하늘로 향한 팽창성도 아직 유지하고 있으며, 터널 공간은 좌우 양쪽과 위로부터 압력을 받는 느낌을 주며, 창문도 없이 벽과 천장으로 에워싸인 실내공간은 완전히 갇혀진 느낌을 준다.

각각의 상황은 공간과 물질이 서로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암시한다. 즉 물질은 공간을 제한하고 공간의 운동에 대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제어하고자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공간은 모든 방향으로 막힘없이 팽창하고 움직이려고 한다. 한정작용이 더 할수록 공간은 농축되어 그 ‘농도’가 높아지며 그 ‘운동의 자유도(degree of kinetic freedom)’가 줄어든다. 공간에 물질이 없다면 극소적인 특징도, 정서적 에너지도, 상호작용도 없다. 그와 같은 공간에 무엇이 퍼져 있다면 그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균

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등방성(等方性: isotropy)을 지닌 공간으로서 그 동적추세(動的趨勢: kinetic tendency)는 어느 방향에서도 동등할 것이다.

2. 투사행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와 같은 역동적인 개념은 단순한 주관론법이 아니라 실제로 적합하고 필요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상상을 통해서 물질과 공간 속으로 자신을 투사(投射) 내지 감정이입(感情移入)하여 팽창하고 여기저기 움직이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구속하고 방향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상호작용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인간의 체험양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실제적이다. 싱클레어 골디가 저술하기를 “따라서 ‘운동의 자유’ 가운데 우리는 실제적인 신체운동 뿐만 아니라 상상 속에서 하게 되는 운동의 확장까지도 포함시켜야한다. 미적(美的)체험의 한 요소로서 ‘건축공간’을 말할 때 우리는 실제적이고 측량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눈과 상상력에 허용되어 있는 공간을 생각해야 한다.<sup>10)</sup>” 우리는 생명을 연상시키는 형태에 “눈을 부릅뜨고” 거기서 “활동 중의 에너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sup>11)</sup>.

투사행위를 통해 우리는 물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건축공간의 다양한 운동성, 즉 공간의 정지, 전진 혹은 회전, 상승과 하강, 팽창과 수축, 빠름과 느림 등을 느낀다. 시대, 문화, 혹은 작가의 성향에 따라 건축공간의 운동성에도 다양한 양상과 내용이 나타난다. 고딕 성당의 높고 길게 뻗은 네이브(nave) 공간은 입구 쪽에서 제단 쪽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동시에 힘차게 솟아 오르고, 거대한 돔과 반(半)돔이 이어지는 하기가 소피아 성당의 높고 넓은 실내공간은 자유롭게 팽창하고 부상하는 느낌을 준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초원주택들은 수평방향으로 길게 뻗은 전체적인 형태로 인해 그 방향으로 확장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동시에 중후한 굴뚝이 중앙부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며 건물을 대지(大地)에 고정시키고 있어 흠어진 공간이 중심으로 회귀하는 것을 촉구하는 듯 하다. 한편 전통한옥의 공간은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처마 끝이 우아하게 하늘을 향해 살짝 올라가는 기와지붕으로 덮여져 있어 안정감이 있는 동시에 매우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이 강하다<sup>12)</sup>.

3. 공간의 운동성과 주거

<표 1>의 공간유형에 있어 A에서 E로 내려가는 순서는 건축요소가 하나씩 추가되어 주거가 점차 구축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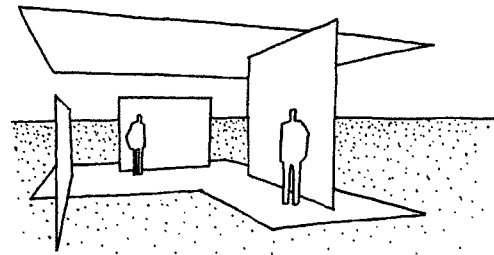


그림 1. 구석들이 열려 있어 유동적인 공간

가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 진행과정에서 공간의 운동성은 점점 제한을 받는 추세를 보인다. 전통적으로 주거공간에서는 운동성보다 정착성이 더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정도와 양상에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두꺼운 조적조벽으로 둘러싸인 유럽의 전통가옥과 전통한옥을 비교하면 전자는 개구부가 적고 폐쇄적이어서 운동성이 현저하게 한정되어 있다. 반면, 가구식구조로 된 한옥은 개방적이어서 외부공간과의 상호관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라이트의 초원주택은 서구 전통가옥의 구심적인 성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평방향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원심적 성향도 간직하고 있다. 현대성을 과시하는 주택들 중에는 구조의 경량화, 대형 판유리의 광범위한 사용, 막힌 구석의 배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매우 유동적인 공간이 창출된다<그림 1>.

V. 공간의 공명

1. 정서적 공명

공간구성요소의 존재와 질서에 의해 규정되는 모든 영향권은 때로는 어떤 음조(音調: tone)나 조성(調性: tonality)으로 묘사될 수 있는 독특한 느낌 혹은 분위기로 특징지어 진다. 방이나 정원을 여러 가지 물체로 채워야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똑같이 채워진 상황을 마치 여러 가지 곡이 동시에 연주되는 것처럼 시각적 ‘소음’ 내지 ‘불협화음’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극히 순수함과 세련됨 속에서 그저 몇가지 장식요소만이 들어가는 일본 다실(茶室)건축은 개개의 물체의 아름다움과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상한 감수성과 존경심을 보여준다. 다실에서 이점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혀 화려하지 않은 단 한줄기의 꽃밖에 들어있지 않은” 화병이다. 그 꽃은 “그러나 어둠침침한 소나무들로 에워싸인 바위 밑에서 핀 작은 흰 백합처럼 이 겸손한 꽃은 아름다움이 향상되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끈다.<sup>13)</sup>” 이 미묘하면서도 엄격한 미의식(美意識)은 실

10) Sinclair Gaudie (1969),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p. 69.

11) Gaudie, p. 111.

12) 김영철(1991), “건축공간의 운동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1호(통권 33호), pp. 189-197 참조.

13) Daisetz Teitaro Suzuki (1934), Essays in Zen Buddhism, Third Series, Lucac and Company, p. 321.

14) Kakuzo Okakura (1964), The Book of Tea, Dover Publications, Inc., p. 18.

제로 일본 다도(茶道)의식(儀式)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색상 하나라도 방의 분위기(tone)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소리 하나라도 의식의 리듬을 망가뜨려서는 아니되며, 몸짓 하나라도 조화를 깨서는 아니되며, 말 한 마디라도 주위의 하나 됨을 깨뜨려서는 아니된다.<sup>14)</sup>” 이 인용문에서 원저자가 분위기란 말로서 음조를 뜻하기도 하는 ‘tone’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느낌, 기분, 혹은 정서는 인간 존재의 내적 상태와 외부 세계 전체를 연결한다. 『분위기의 본질』의 저자 볼노우는 ‘heifer’(맑은, 밝은), ‘sonnig’(햇볕이 잘 드는, 밝은), ‘dunster’(어두운, 음침한), ‘umwolkt’(흐린, 어두운)과 같이 날씨라는 자연현상과 관련된 형용사가 우리의 정서적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기쁨은 ‘밝은’ 것이고 슬픔은 ‘어두운’ 것이다<sup>15)</sup>.

‘기분’이나 ‘느낌’을 뜻하는 독일 말로서 볼노우와 하이데거가 쓰는 단어는 ‘Stimmung(슈티밍)’이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의미심장하게도 악기의 조율이다. 따라서 내기분이 어떻다 함은 내 조율 상태가 어떻다 함을 가리킨다. 하이데거는 모든 존재는 항상 어떤 기분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sup>16)</sup>. 모든 기분은 소위 진동이나 파동의 한 형태로서 특정한 주파수와 진폭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 2. 시적 감동의 세계

시인이나 예술가 눈에 비추어지는 세계는 영적 의미와 가치가 스며들어 있는 생명의 현장이기에 그것을 물리적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항상 부적합하다<sup>17)</sup>. 우리가 시인이나 예술가가 아닐지라도 주위의 물건들을 깊게 느낄 때면 환경은 살아나고 활력을 지니게 된다. 평상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쫓기듯이 지내다가 가끔 기분 전환으로 자연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면 산의 엄숙함, 조용한 숲의 고독, 혹은 오랜만에 단비를 맞아 적셔지는 대지를 발견하며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는다.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것 속에서도 ‘생명의 맥박’과 같은 진동[울림]을 감지하게 된다. 특히 심오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시인이나 예술가에게 있어 자연세계는 에너지가 약동하는 장이다. 어린 시절에 미국서부 농장에서 자연과 가까이 지낸 적이 있는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노출된 지층들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경관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지며 그 살아있는 울려퍼짐에 압도당한다.

다채롭고 바람에 노출된 지층의 길고 나지막한 선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점선, 풍부한 질감을 지닌 평야, 평행층을 이루면서 고귀하게 조용히 놓여 있거나 사막 저지대의 식물 위로 장엄하게 올라가는 위대한 매스들. 자연의

석조건축은 쌓이고 겹겹의 산맥들을 이루며 그들 나름의 형태언어를 말하는 것 같구나.

.....

.....

이 보는 음악(eye-music)의 구성이 어찌하여 듣는 음악(ear-music)과 어울리는가?

느낌이 있는 존재 속에서는 춤추는가 하면, 무늬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도 똑 같이 느낌이 있는 이 내적 리듬의 영역은 무엇인가?<sup>18)</sup>

이러한 ‘청각적 은유’는 현상학자 어젠 민코프스키에 의해 연구된바 있다. “만일 우리가 원래 형태를 마음의 눈 속에 고정시켜 놓고, 우리 자신에게 그 형태가 어떻게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동적이고 생생한 범주, 우주의 새로운 속성, 즉 울려퍼짐(불어 retentir; 영어 to reverberate)을 발견하게 된다.”<sup>19)</sup>이 ‘울려퍼짐’이란 개념은 바슐라르의 ‘시적 이미지’라는 개념에 필수적인 것이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울려퍼짐 속에서 “우리는 시적 이미지라는 존재의 실제적인 양을 알게 되며”, 또한 “이 울려퍼짐 속에서 시적 이미지는 존재의 울려퍼짐을 갖게 될 것이다.”<sup>20)</sup> 여기서 “우리의 감동은 잃어버린 시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다.”<sup>21)</sup>

## 3. 공간의 공명과 주거

건축행위란 각종 공간구성요소를 구사함으로써 독립적인 공간을 변화시켜 우리 생명과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을 창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닥, 기둥, 벽, 지붕 등 공간구성요소들은 공간을 온전하게 에워싸지 않고서도 우리 존재를 거두어들이고 정착할 수 있는 장소를 창출함으로써 주거공간의 ‘씨앗’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표 1>. 한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정을 받고 익숙해지며 우리의 일부가 된 주거는 이제 분명 ‘우리 집’이고 보금자리이며 가족과 확실한 공명을 이루는 영역이다.

우리가 주위 환경과의 공명을 갈망하는 데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모성적 공간에 대한 기억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어머니의 배와 품속에서 그리고 어머니 주위에서 어머니 분위기 혹은 공기를 들이쉬면서 보호된 생을 시작한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사람은 주위환경과의 융합과 조화를 쉽게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의 환경이며 세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짓고자하는 사람의 욕망은 모성적 환경 속에서 누렸던 자신과 주위공간과의 일치 혹은 공명에 대한 뿌리 깊은 기억에서 자극을 얻는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sup>22)</sup>.

16) Martin Heidegger (1962), Being and Time, SCM Press Ltd., p. 173.

17) Thome H. Fang (1980), The Chinese View of Life, Linking Publishing Co., p. 29 참조.

18) Frank Lloyd Wright (1955), An American Architecture, Horizon Press, pp. 187-188.

19) Eugene Minkowsky, Vers une Cosmologie, Chapter IX. Gaston Bachelard (1964), The Poetics of Space, Beacon Press, p. xii, editor's note에서 재인용.

20) Bachelard, p. xii.

21) Bachelard, p. 6.

22) Olivier Marc (1972), Psychology of the House, Thames and Hudson Ltd., p. 14 참조.

## VI. 결 론

우리의 직관적인 체험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물체의 존재는 주위공간에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즉, 공간은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압축과 확장, 농축과 희박화, 개방성과 폐쇄성, 정지와 이동, 상승과 하강 등 다양하게 묘사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이런 공간의 특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 우리 공간체험이 이와 같이 역동적인 내용을 수용하게 되는 배경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투사행위 내지 감정이입이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주위환경에 우리 자신의 기능을 투사하여 마치 공간과 물체가 의식, 지각, 운동기능 등을 가지며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체험양태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공간에 대한 역동적인 내용을 농도, 운동성, 공명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연상시키는 세 가지 속성으로 정리하여 고찰하였다. 이들 속성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지만 우리의 체험내용에서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끝으로 물체의 형태와 질서가 주는 영향을 중심으로 공간의 이들 속성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체의 존재는 그 형태와 질서에 따라 주위에 농도가 향상된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농도의 향상은 동시에 어떤 에너지 강도의 향상으로서도 인식될 수 있다. 물체에 가까운 곳, 물체에 의해 보호되어 있는 곳, 구석진 곳, 지붕이나 천장으로 덮여있는 곳 등의 공간은 농축되어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빈 공간과 속이 찬 물체는 정서적 에너지로 충전된 연속적인 장에서 농도의 높고 낮음의 양극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거는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를 응집하고 정착시키는 장소이다. 인간은 거주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거처에 자기 존재를 거두어들이고 정착시키며 자기 존재를 세상 속에서 확립시키게 된다. 주거전체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 즉 바다, 기둥, 벽, 지붕 등도 각각 그 위, 부근, 주위 혹은 아래에 농축된 영역을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존재를 거두어들이고 정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둘째, 물체의 형태와 질서는 또한 공간의 운동성을 결정하는 데에 기여한다. 물체에 의한 에워싸임이 더 할수록 공간의 운동성은 제한을 받으며 물체가 개방적으로 구성 배치될수록 공간의 운동성은 향상된다. 길게 선적인 형태 혹은 넓게 퍼진 면적인 형태가 강조되면 공간은 그 강조된 방향으로 확대하거나 움직이고자 하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 전통적으로 주거공간에서는 운동성보다 정착성이 우선되어 왔다. 그러나 정착성을 추구하여 너무 에워싸게 되면 감옥과 같은 답답한 공간을 만들게 되고, 운동성을 추구하여 너무 개방시키면 안정감이 없어 허전한 공간을 만들게 된다. 취향과 상황에 따라

동적추세와 정적추세 사이에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한다.

셋째, 물체의 형태와 질서는 또한 공간이 풍기는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에 기여한다. 단,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 각각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외부로부터 잘 보호된 작은 공간은 긍정적으로는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반대로 규모가 크고 개방적인 공간은 밝고 시원하며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노출이 심해 허전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어떤 주거가 사람 내면의 진동과 공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내 집’이 되고 ‘내 보금자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람과 환경의 내면적인 공명과 조화는 바로 우리가 건축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1. Bachelard, Gaston (trans. Maria Jolas) (1969), *The Poetics of Space*, Peacon Press.
2. Bollnow, Otto Friedrich (1956), *Das Wesen der Stimmungen* (6th printing, 1980), Vittorio Klostermann.
3. Bollnow, Otto Friedrich (1963), *Mensch und Raum* (4th printing, 1980), W. Kohlhammer.
4. Fang, Thome H. (1980), *The Chinese View of Life*, Linking Publishing Co.
5. Gaudie, Sinclair (1969), *Architecture*, Oxford University Press.
6. Goldfinger, Erno (1941), “The Sensation of Space”, *The Architectural Review*, Vol. XC, No. 539, pp 129-131.
7. Guénon, René (trans. Lord Northbourne) (1972), *The Reign of Quantity and Signs of the Time*, Penguin Books Inc.
8. Heidegger, Martin (trans. Joh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1962), *Being and Time*, SCM Press Ltd.
9. Marc, Olivier (1972), *Psychology of the House*, Thames and Hudson Ltd.
10. Neutra, Richard (1954), *Survival through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11. Okakura, Kakuzo (ed. Everett F. Bleiler) (1964), *The Book of Tea*, Dover Publications, Inc.
12. Suzuki, Daisetz Teitaro (1934), *Essays in Zen Buddhism*, Third Series, Lucaz and Company.
13. van de Ven, Cornelis (1980), *Space in Architecture*, Van Gorcum.
14. Wright, Frank Lloyd (ed. Edgar Kaufman) (1955), *An American Architecture*, Horizon Press.
15. 김영철(1991), “건축공간의 운동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제1호(통권33호), pp. 189-197.
16. 김영철(1995), “건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정착과 집중”,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9호(통권83호), pp. 3-14.
17. 김영철(2000), “생활 공간의 정서적 장역학”, *한국주거학회지*, 제11권 제2호, pp. 13-23.

(接受: 2005. 5. 13)